

상담에서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국내 연구 동향

A Review of Research Trends of Supervision Working Alliance for Counseling in Korea

정지애*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Ji-ae Jeong*

School of Liberal Arts, Seowon University, Cheongju 28674, Korea

[요약]

본 연구는 상담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인 작업동맹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최근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12편의 논문에 대해 연도별, 연구대상과 상담자 요인,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06년을 시작으로 총 12편의 연구가 진행되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은 수퍼바이저(83.3%)로 편중되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16.7%), 수퍼바이저(0%) 대상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상담자 특성에 대한 연구도 수퍼바이저(17.3%)는 추론된 상태(8.3%), 추론된 특성(3.5%)이 높았다. 수퍼바이지(82.5%)도 추론된 상태(56.3%)와 추론된 특성(27.1%)으로 연구되어 관찰가능한 상태와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연구(100.0%)로 이루어져 질적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 and suggest directions of research with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working alliance which relation between supervisor and supervisee in counseling supervision. The study analyzed 12 researches by chronologically, research object, counselor's factor, research metho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data was scant because there was only 12 articles since 2006. Second, the research, which object was supervisor(83.3%) and supervisee(16.7%) and supervisor(0%) was insufficiency with regard to the research of supervisee(83.3%). In addition to, the research about observable state and observable trait was insufficient, while inference state(56.3%) and inference trait(27.1%) was the highest in the research about Counselor's trait which object was supervisor(17.3%). Third, the method of research was quantitate research(100%), there is no qualitative research. At the last, discussion of the result, limitation of the study, follow study were proposed.

Key Words: Supervision Working alliance, Supervision, Supervisor, Supervisee, Working alliance, Counselling

<http://dx.doi.org/10.14702/JPEE.2018.06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0 April 2018; **Revised** 11 May 2018

Accepted 15 May 2018

***Corresponding Author**

E-mail: career4ui@naver.com

1. 서론

최근 정부는 4차산업 종합계획으로 혁신성장을 위해 사람 중심의 주된 내용으로 산업·사회문제를 지능화로 해결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1]. 산업화·고도화로 시작된 복잡한 사회 문제는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를 변화시켜 상담 분야로 진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교육부에 등록된 상담 관련 학과 숫자가 2012년에는 대학원 125개 학과(특수대학원 포함), 대학 23개 학과(사이버 대학 포함)에서 2016년 대학원 157개, 대학 39개 학과로 늘어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도 2012년도 146건에서 2016년 537건으로 확대된 것을 보아도 그 사회적 수요를 알 수 있다[2].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중요한 심리학적 과정으로 상담의 책무성·전문성 이슈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상담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특히 상담자 교육 가운데 슈퍼비전은 상담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는 교육 과정으로 상담자들의 상담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상담자 훈련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3,4].

슈퍼비전이란 경험이 많은 선배 상담자가 경험이 적은 후배 상담자들의 상담 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상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조력하는 교육 과정이다[4]. 이러한 슈퍼비전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수련생의 전문가로서의 발달을 촉진하고, 둘째, 내담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4].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서 슈퍼바이저에게 상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상담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상담능력을 갖게 해 주고[5], 상담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6]. 또한 슈퍼바이저에게 이론적으로 습득했던 잠재적 역량을 펼쳐나가도록 임상기술을 발전시켜 주고[7], 전문가에게는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지지를 통해 증거기반 임상 실행을 촉진시키며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정체감을 높여준다[8].

두 번째, 내담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내담자에게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9].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배우게 될 때 상담자의 전문성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10].

이렇듯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슈퍼비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수

퍼비전 과정, 슈퍼비전 성과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11]. 선행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슈퍼비전 관계를 들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슈퍼비전 관계가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3,12].

Bordin[12]은 슈퍼비전 영역에서의 교육자와 학습자간 상호동 의와 신뢰의 관계를 슈퍼비전 작업동맹으로 정의하였다.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동의된 목표와 과제를 수행할 때,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이라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효과적인 슈퍼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인 슈퍼바이저와 학습자인 슈퍼바이저 간에 교육목표에 대한 상호 확인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참여자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슈퍼비전 작업동맹은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강화시키고[15], 슈퍼비전 성과 변인인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3,14].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만족도가 높아지면 상담 실제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당면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내담자를 보다 전반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고, 내담자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15].

하지만 이와 같은 슈퍼비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슈퍼비전은 도제식으로 이루어져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하여, 슈퍼바이저들이 자신들의 상담 경험이나 슈퍼비전 경험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16]. 또한 슈퍼비전 관계가 대체로 위계적, 종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14], 한국 상담자들의 슈퍼비전은 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지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질 목표와 과제에 대한 명료화와 합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적 관계의 맥락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슈퍼비전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와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7]. 또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집단을 대상으로 작업동맹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의 선정과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구조 모형을 개발 및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8]. 국외연구를 살펴보아도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50년 동안의 통합적 고찰[19]과 이론과 실제에 대한 동향연구가 이루어졌다[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담 슈퍼비전과 관련된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상담 슈퍼비전에서 작업

동맹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수퍼비전 성과를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수퍼비전 작업동맹 연구 현황(연도, 자료수집기간, 연구주제)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대상 및 상담자 요인 연구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A. 분석대상 검색 및 선정

상담 수퍼비전 동향연구를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퍼비전’으로 검색 결과 1,802편(학위논문 1,091편, 학술지 711편)이 검색되어 이후 ‘작업동맹’, ‘상담협력관계’로 ‘결과 내 재검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8편(학위논문 26편, 학술지 22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 수준을 보고 수퍼비전과 작업동맹의 주제인지를 분류하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지 논문만 추출한 결과 24편(학위논문 7편, 학술지 17편)이 검색되었다.

이후, 연구주제의 맥락적 일관성을 위해 연구대상을 일일이 검토하여 연구대상 중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상담자(심리상담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놀이치료자와 음악치료자 11편(학위논문 5편, 학술지 6편)을 제외하고, 상담자(임상심리사, 심리상담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 등의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인 경우로 한정하여 13편(학위논문 2편, 학술지 11편)을 연구자가 선정하였다(2017년 9월 25일 기준). 이후 평정과정에서 척도개발에 대한 질적연

구 1편이 제외되어 12편(학위논문 2편, 학술지 10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B. 평정자

연구의 평정은 연구자가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수퍼비전 경험과 수퍼비전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3명(상담 분야 박사수료생 2명, 박사과정생 1명)이 본 연구의 수퍼비전 작업동맹 논문에 대하여 분류기준에 맞추어서 잘 분류되었는지 검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 단위마다 한 개 이상의 변인이 들어간 경우, 각 변인에 점수를 부여하여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연구에 연구주제가 한 개일 경우는 1점을 부여하고, 두 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한 경우 0.5, 세 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0.33으로 계산하였다.

C. 평정절차

본 연구에 대한 평정 및 평가는 1) 평정분류 기준 및 정의, 2) 평정 및 평정 검수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게재논문의 분류기준 및 정의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주제는 5개[21-23], 자료수집기간 2개[24], 연구대상은 4개[21]와 경력 구분 유무, 연구방법 3개 범주[25], 통계분석은 7~12개 범주[24], 측정도구 4개[23], 상담자 요인 연구 내용은 4개[23,26,27]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을 수정 보완한 결과 연도별 5개의 연구주제와 2개의 자료 수집 기간, 4개의 연구대상 및 각각 4개의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상담자 요인,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은 양적, 질적, 혼합 3개와 7개의 통계분석을 분석 범주로 확정하였다(표 1).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

Table 1. Classification categories and details

분류범주		세부사항
연도별	기초사항	출판연도, 저자, 학회지/학위 논문 구분, 제목
	자료 수집 기간	한 시점에서만 자료 수집, 두 시점 이상에서 자료 수집
	연구 주제	성과연구, 과정연구, 과정성과연구, 척도개발연구, 개관 연구
연구 대상(경력)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일반
상담자 변인	수퍼바이저	관찰 가능한 상태, 관찰 가능한 특성, 추론된 상태, 추론된 특성
	수퍼바이지	
연구 방법		양적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혼합 연구 변량분석계열, 회귀분석 계열,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 비모수적 분석, 기타

둘째, 본 연구자가 평정한 연구에 검수자들이 연구자가 작성한 “평정지침서”를 제시받고 분류기준에 잘 분류되었는지 대하여 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를 기재하였다.

D. 분류기준

1) 연도별 연구주제

본 연구의 연도별·수집기간별 연구주제 분석을 위하여 학회지와 학위 논문으로 분류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한 시점에서 자료 수집한 경우와 두 시점 이상에서 자료 수집한 연구로 분류하였다[24]. 연구주제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 특성과 슈퍼비전 연구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었으나[22,23],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 동향 연구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성과, 과정, 과정성과, 척도개발, 개관 연구로 분류하였다[21].

a) 성과연구 : 슈퍼비전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성 검증이나 슈퍼바이저의 최종적인 변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과 검증을 포함한다.

b) 과정 연구 :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슈퍼비전 과정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언어, 행동 그리고 내적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c) 과정-성과 연구 : 슈퍼비전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슈퍼비전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 과정에서 슈퍼비전 성과는 슈퍼바이저의 최종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슈퍼비전이 끝난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다.

d) 개관연구 : 슈퍼비전과 작업동맹에 대해서 기존의 상담 심리학 연구를 개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2) 연구 대상 및 상담자 변인 분류

a)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작업동맹 동향 연구[21]의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를 수정하여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일반(내담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발달수준에 대한 경력 구분유무를 함께 분하였다.

b) 상담자 요인 분류

상담자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류[23,26,27]에 의하여 네 가지 상담자 변인 분류기준에 따라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로 각각 분류하였다.

상담자요인은 두 가지 척도들(Dimensions)을 사용하여 특성(trait)과 상태(state) 측면과 관찰 가능한(observable)과 추론된(inferred) 측면이 ‘관찰가능한 상태’, ‘관찰가능한 특성’, ‘추론된 상태’, ‘추론된 특성’ 4가지로 분류하였다. 특성이란 상담자의 상담 외의 삶에서 나타나는 상담에 부수적인 사항들이다. 이와 상반된 개념인 상태는 상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고 정의된 상담자 변수라고 정의된다. 관찰 가능한 상담자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상담자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기록이나 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다. 반대로 추론된 것은 추론의 과정을 거쳐 확인되는 가정적 사항들로 상담자 자신들의 보고서에 의해서만 확인 가능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분류기준의 정의와 예를 제시하였다[26, 23 재인용].

3) 연구방법 및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분류유목을 사용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25]. 통계분석은 [22,23]의 분류유목을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논문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통계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유형 구분은,

표 2. 상담자 요인의 네 가지 분류 내용(주은선, 박영주, 2015)

Table 2. Four categories of counselor factors

분류사항	정의	예
관찰 가능한 특성	상담자 이외의 타인에 의해서 관찰 및 기록될 수 있으며 상담자로서 역할과 독립된 사항들이다.	성별, 인종, 연령
관찰 가능한 상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치료자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들로 상담자에 의해 추론될 필요 없이 상담자와 독립된 방법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전문적인 훈련의 유형, 상담자의 훈련 정도, 치료적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 전문적 경험, 개입의 종류
추론된 특성	상담자로서 역할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항들로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들에 의해서만 추측될 수 있다.	상담자의 성격, 대처유형, 상담자의 정서적 안정 수준, 가치, 신념, 태도, 문화를 대하는 태도
추론된 상태	상담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만 추측될 수 있으며 치료자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담자변인들이 이에 속한다.	치료적 관계, 이론적 배경

변량분석계열(t검증, 변량분석, 다변량분석 등), 회귀분석계열(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함수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경로분석, 변량구조분석, Amos, Lisrel 등) 그리고 비모수적 분석(Kruskal-Wallis검증, X² 검증 등)이 분류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이 외에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결과

A. 연도 · 자료수집기간 · 연구주제 연구현황

연도별 연구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6년 슈퍼비전 작업동맹 척도 변안 학술지 논문[11]을 시작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학술지 10편(84.6%), 학위논문 2편(16.7%)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 현황은 과정성과연구가 10편(76.9%)으로 가장 많았고, 과정연구 2편(15.4%)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성과 연구로 여러 가지 과정변인들인 상담자 특성(내적 수치심, 비개방수준, 역할 갈등 및 어려움,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사회적 바람직성, 슈퍼바이저행동, 수치심, 자기수용 등)이 상

담성과(상담만족도, 슈퍼비전 회기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과정연구로서 작업동맹을 과정변인으로 간주하고 다른 과정변인들과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슈퍼바이저 변인, 슈퍼바이저 변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과정연구는 슈퍼바이저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작업동맹과의 관계, 슈퍼비전 작업동맹척도 요인구조 탐색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 연구현황은 한 시점에서의 자료수집으로 12편(100.0%)이 이루어졌다.

B. 연구대상 및 상담자 요인 연구현황

연구대상별 연구현황은 표 4와 같이 슈퍼바이저 연구가 10건(83.3%)으로 높게 나타났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상호작용 연구는 2건(16.7%)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저 연구로서 대다수의 연구들이 기초통계로 학력, 자격증, 상담경력, 슈퍼비전 경력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슈퍼바이저의 경력 및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비교·기술된 연구는 상·하위 25% 집단만을 초보와 숙련으로 구분[11], 수련생과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14], 상담자발달수준

표 3. 연도 · 자료수집기간 · 연구주제별 연구현황

Table 3. Year · Data collection period · Research subject status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학위							1			1			2(16.7)
학술지	2	1	1			1	1	1	2			1	10(83.3)
한시점	2	1	1			1	2		2	1		1	12(100.0)
두 시점 이상													0
성과													-
과정						1	1						2(16.7)
과정성과	2	1	1					1	3	1		1	10(83.3)
척도개발													-
개관													-
합계	2 (16.7)	1 (8.3)	1 (8.3)	0 (0.0)	0 (0.0)	1 (8.3)	2 (8.3)	1 (16.7)	2 (16.7)	1 (8.3)	0 (0.0)	1 (8.3)	12 (100.0)

표 4. 연구 대상 연구현황

Table 4. Research target status

구분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일반	계
합계 (경력구분 유무)		10(3)	2	0	12
%	0.0%	83.3%	16.7%	0.0%	100.0%

표 5. 상담자 요인 분류 연구현황

Table 5. Counselor factor classification research status

구분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계
	관찰 가능한 상태	관찰 가능한 특성	추론된 상태	추론된 특성	관찰 가능한 상태	관찰 가능한 특성	추론된 상태	추론된 특성	
빈도		1	4	2		1	13	12	33
빈도율(%)	0.0	0.3(2.8)	1.0(8.3)	0.4(3.5)	0.0	0.3(2.1)	6.7(56.3)	3.2(27.1)	12.0
합계(%)		7(14.5)				26(85.5)			100%

과, 학력, 상담자격증, 상담경험, 수퍼비전 경험으로 구분[2]의 3편에 불과하였다. 둘째, 수퍼바이저 연구대상의 엄격성으로 6개월 이내 수퍼바이저 1명과 3회 이상 수퍼비전 경험 [14], 1년 이내 수퍼바이저 1명과 3회 이상[2], 수퍼비전 경험 중[3,17,29-31], 1년 이내 개인상담 사례 진행 후 수퍼비전 경험[18], 1년 이내 1회 이상[32,33]으로 연구되었다. 셋째, 비교 연구로는 다문화적 환경 차이를 보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10]만 존재하였고,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내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대상을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상담자 요인 분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추론된 상태로 수퍼바이저(4건, 11.5%)와 수퍼바이저(13건, 55.6%) 모두 과정변인으로서 상담자의 다양한 가치, 신념, 태도, 문화를 대하는 태도(내적 수치심, 비개방수준, 역할 갈등 및 어려움,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사회적 바람직성, 수퍼바이저행동, 수치심, 자기수용 등)가 반영되었기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추론된 특성으로 수퍼바이저(2건, 3.2%)와 수퍼바이저(12건, 24.9%) 모두 성과변인으로서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수퍼비전 만족도를 척도로 많이 사용하였기에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경력과 관련된 훈련 정도를 수퍼바이저(1건, 2.5%)와 수퍼바이저(1건, 1.9%)로 나타났다(표 5).

C.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별 연구현황

연구방법별 연구현황을 보면, 양적 통계분석 12편(100%)

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 분석 중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이 9건(32.7%)으로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등이 있었다. 요인분석은 6건(21.6%)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사용되었고, 비모수적 분석도 6건(14.5%)으로 X² 검증 등이 주를 이루었다. 회귀분석 계열은 5건(17.3%)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변량분석계열은 3건(13.9%)으로 일원다변량과 T검증이 이루어졌다(표 6).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 수퍼비전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총 1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 자료수집 기간, 연구주제, 연구대상, 상담자 요인,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도출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12건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담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상담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수퍼비전 연구는 적은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함을 나타낸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상담학연구 전체 논문 564건, 상담 및 심리치

표 6. 연구방법 연구현황

Table 6. Research method research status

	양적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	비모수적 분석	질적	혼합	합계
	변량 분석 계열	회귀 분석 계열	요인 분석	군집 분석	판별 분석					
빈도	3	5	6	-	-	9	6	-	-	29
빈도율(%)	1.7(13.9)	2.1(17.3)	2.6(21.6)	-	-	3.9(32.7)	1.7(14.5)	-	-	12(100.0)
합계(%)				12(100.0)				-	-	12(100.0)

료 437건이었으나[24],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중 상담자 특성과 훈련 및 수퍼비전 연구는 20건(8.4%)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2]. 작업동맹 동향 연구[21]는 1992년 2010년까지 8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분석 논문 대상도 유성경 등(총 4편)과 강순화, 주영아, 조하나(총 3편)의 소수의 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학위 논문도 총 2건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경우 상담 실습 커리큘럼이 빈약하다 보니 수퍼비전 교육 역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담 관련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16]. 한편 국외연구에서는 2010년 17편의 동향연구 이후, 2012년 1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까지의 추가기간에 24편의 연구가 추가되었다[20].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는 상담에서 수퍼비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 상담 현장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수집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가 한 시점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 동향연구에서 3개 시점으로 1~2학기 과정중에 연구가 대다수 이루어진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20]. 상담자 발달과 전문적 성장을 이루는 지체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수퍼바이저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상담 발달의 영역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주제로 동일한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종단적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연구 결과를 진정한 발달인지, 동료의 영향인지 등으로 구분하기 어렵다[4]. 또한 수퍼비전 회기에 따른 측정 시점에 따라서도 작업동맹 형성이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두 시점 이상의 종단연구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연구주체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과정성과연구가 10편(83.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과정변인들인 상담자 특성이 상담성과(상담만족도, 수퍼비전 회기평가)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선행 연구에서 수퍼비전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수퍼비전 관계를 들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수퍼비전 관계가 수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3,13] 과정과 성과를 같이 연구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작업동맹의 과정변인과 결과변인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개인특성을 포함한 연구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28]). 국외 수퍼비전 작업동맹 동향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애착스타일, 회피, 소진, 역할 갈등 등의 다양한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20]. 또 국내 작업동맹 동향연구[21]에서는 작업동맹을 과정변인으로 간주하고 다른 과정변인들과

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67.0%로 높게 나타났고, 내담자변인(공격성, 대상관계, 사회적지지 등), 상담자 변인(공감능력, 발달수준, 역전이 등), 내담자-상담자의 상호작용(상호성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렇기에 수퍼비전 작업동맹 연구에서도 수퍼비전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바이저 변인, 수퍼바이저 변인,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세분화된 과정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대상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저 연구가 10건(8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40개의 연구에서 4,563명의 수퍼바이저와 837명의 수퍼바이저로 연구되어 대다수 수퍼바이저 관점에서 연구된 국외 수퍼비전 작업동맹 동향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하였다[20]. 하지만 국외 동향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동향 연구는 편수도 적지만 수퍼바이저가 2,753명, 수퍼바이저가 137명으로 수퍼바이저에 대한 연구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작업동맹에 형성에 기여하는 상담자, 내담자 요인 중 상담자 요인은 내담자 요인에 비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직접적으로 내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36]. 상담과 수퍼비전 과정의 유사함으로[3], 수퍼비전 작업동맹에서도 수퍼바이저의 역할이 강조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수퍼비전에서는 수퍼바이저의 발달수준에 맞추어서 수퍼비전의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퍼바이저의 역할 및 특성은 수퍼비전 작업동맹 형성에 중요하다[3]. 이러한 이유로 향후 효과적인 수퍼비전 작업동맹을 위하여 다양한 수퍼바이저 요인과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기초통계로 학력, 자격증,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력 등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수퍼바이저의 경력을 구분하여 연구된 논문은 3편에 불과하였다.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수퍼비전 과정 안에서 다양한 맥락의 요구에 의해 변화하는 두 개인의 독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독특성은 성격 유형, 인지 유형, 인지적 복잡성, 이론적 배경, 인지적 발달, 경험수준 등에 의한 다양한 변인들의 교집합으로 수퍼바이저 특성이 이루어지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3]. 선행연구에서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8].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집단별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어서 상담자 변인을 Beutler 등[27]의 분류기준으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변인을 내용 분석한 결과, 수퍼바이저 변인 연구 26건(85.5%)로 나타났으며 수퍼바이저 변인 연구는 7건(14.5%)로 나타났다. ‘추론된 상태’는

수퍼바이저(4건, 8.53%)와 수퍼바이지(13건, 56.3%) 모두 높게 나타났고, ‘추론된 특성’은 수퍼바이저(2건, 3.5%)와 수퍼바이지(12건, 27.1%) 모두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론된 상태인 작업동맹과 추론된 특성으로 성과변인인 만족도로 주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은선과 박영주[23]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분석에서는 ‘관찰 가능한 상태’ (58.6%, 60.15편), ‘추론된 특성’(28.7%, 29.45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찰 가능한 상태’에서 치료과정 촉진기술에 대한 논문이 많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향후 수퍼비전 작업동맹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요인 중 다양한 촉진기술과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태도, 성격을 포함한 관찰가능한 상태와 추론된 특성으로 후속연구가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별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양적 통계분석으로 12편(100.0%)으로 이루어졌고, 양적 분석 중 다변인간 인과관계 분석이 9건(32.7%)로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 필요[17], 작업동맹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의 선정과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구조 모형을 개발 및 검증 필요[18] 등 선행연구와 부합하지만, 연구 편수가 적기에 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퍼바이저의 작업동맹 경험에 대한 경험,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퍼비전 작업동맹 형성 요인 등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상담분야에서는 양적연구만으로는 제한점을 가지고, 현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새로운 요소들을 발견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하여 질적연구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상담 수퍼비전 국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상담자 변인 연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문화적 맥락과 상담 성과적 측면에서 상담 수퍼비전의 작업동맹에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학위논문 구분 없이 논문을 선정하였고, 검색키워드를 ‘수퍼비전’과 ‘작업동맹’과 대상의 맥락을 고려하여 ‘상담자’로 한정하여 선정하였기에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 둘째,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중요성으로 동향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그 편수가 작기에 해당 연구내용을 일반화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향후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어서 연구논문 편수가 적었기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개별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기에 향후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과 작업동맹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를 넘어선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자가 선행 동향연구를 분석하고 연구과정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분류 연구단위 변인 추출과정과 분류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Human-Oriented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ponse plan for innovation growth,” Joint Ministry, 2017.
- [2] M. J. Kim and S. E. Kim, “Supervisee perception of ethical behavior of supervisors and its impact o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9, no. 3, pp. 607-627, August 2017.
- [3] J. Y. Kang and S. K. Yoo, “Mediating effect of working-alliance and self-disclosure in supervision in the relationship of supervisee’s shame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4, pp. 1005-1021, December 2006.
- [4] J. M. Bernard and R. K. Goodyear, *Fundamental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Boston: Allyn & Bacon, 2009.
- [5] T. M. Cashwell and K. Dooley, “The impact of supervision on counselor self-efficacy,” *Clinical Supervisor*, vol. 20, no. 1, pp. 39-47, May 2001.
- [6] E. L. Holloway and S. A. Neufeldt, “Supervision: Its contribution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3, no. 2, pp. 207-213, April 1995.
- [7] C. Loganbill, E. Hardy, and U. Delworth,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0, no. 1, pp. 3-42, March 1982.
- [8] D. Best, E. White, J. Cameron, A. Guthrie, B. Hunter, K. Hall, and D. I. Lubman, “A model for predicting clinician satisfaction with clinical supervision,”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vol. 32, no. 1, pp. 67-78, January 2014.
- [9] C. E. Watkins Jr, “The ineffective psychotherapy supervi-

- sor: Some reflections about bad behaviors, poor process, and offensive outcomes,” *Clinical Supervisor*, vol. 16, no. 1, pp. 163-180, December 1997.
- [10] E. J. Son, S. K. Yoo, J. Y. Kang, and Y. S. Lim, “The influence of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the supervisee’s experience level on his or her role difficulties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8, no. 4, pp. 695-711, November 2006.
- [11] B. E. Wampold and E. L. Holloway, “Methodology, design, and evalua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research,” In C. E. Watkins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New York: John Wiley, pp. 11-27, 1997.
- [12] E. S. Bordin, “A working alliance based model of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1, no. 1, pp. 35-42, March 1983.
- [13] M. J. Patton and Jr. D. M. Kivlighan, “Relevance of the supervisory alliance to the counseling alliance and to treatment adherence in counselor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4, no. 1, pp. 108-115, 1997.
- [14] J. Y. Hong, “The influence of supervisory style o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the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 vol. 9, no. 4, pp. 1489-1504, December 2008.
- [15] S. H. Sohn, “Supervisees’ nondisclosure in counseling superv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1, pp. 57-74, February 2005.
- [16] J. H. Son, “Components of effective supervision by supervisor behavior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 vol. 5, no. 2, pp. 243-261, June 2004.
- [17] S. W. Kang, Y. A. Ju, and H. N. Cho, “The effect of supervisor’s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on supervisee’s self-disclosure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 a mediation analysis of supervisee’s counselor self-efficacy,” *Institute of Social Science*, vol. 53, no. 1, pp. 141-171, June 2014.
- [18] E. K. Seo and S. K. Yoo, “Relation of supervisee 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to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mediational effects of shame, self-acceptance, and cognitive coping - Comparison between counseling trainees and counselors having the certificat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4, no. 1, pp. 1-26, February 2012.
- [19] C. E. Watkins, “The supervisory alliance as quintessential integrative variabl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vol. 44, no. 3, pp. 151-161, September 2014.
- [20] C. E. Watkins, “The supervisory alliance: A half century of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in critic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 68, no. 1, pp. 19-55, March 2014.
- [21] E. H. Kim and S. M. Park, “The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 on the working allian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3, no. 1, pp. 1-25, February 2011.
- [22] S. H. Jo,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1988-2003),”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4, pp. 811-832, November 2003.
- [23] E. S. Joo and Y. J. Park,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counselor and the Korean counselors' factors which affect counseling outcome in psychotherapy based 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1983-2012),”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4, no. 2, pp. 453-484, June 2015.
- [24] H. Jo, K. H. Kim, and J. M. Yi,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in Korea: based 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099-2113, December 2009.
- [25] J. W. Creswell,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3.
- [26] A. J. Blow, D. H. Sprenkle, and S. D. Davis, “Is who delivers the treatment more important than the treatment itself? The role of the therapist in common facto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33, no. 3, pp. 298-317, June 2007.
- [27] L. E. Beutler, M. Malik, S. Alimohamed, T. M. Harwood, H. Talebi, S. Noble, and E. Wong, “Therapist effects,” in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th ed. Michigan:Wiley, pp. 227-306, 2004.
- [28] S. W. Kang, Y. A. Ju, and H. N. Cho, “H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supervisor and supervisee’s self-disclosure and their working alliance on supervision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2, no. 3, pp. 631-651, September 2013.

- [29] E. J. Son and S. K. Yoo, "The relations among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role difficulties,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A cross-cultural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6, no. 2, pp. 161-182, June 2007.
- [30] S. H. Lee and D. M. Kim, "An investigation of WAI-T (Working Alliance Inventory-Trainee) factor structur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2, no. 2, pp. 43-62, June 2011.
- [31] Y. A. Ju, S. W. Kang, and H. N. Cho, "The effect of supervisee's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on counselor activity self efficacy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 the mediation effect of self-disclosur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2, no. 1, pp. 151-171, 2014.
- [32] Y. J. Lee, "The influence of supervisory style and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on feedback acceptance of supervisee," Master's thesis, Graduate of School Sookmyung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4.
- [33] J. W. A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ervisee'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nondisclosure,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of School Sookmyung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5.
- [34] J. A. Hayes and C. J. Gelso,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countertransference: Science inform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7, no. 8, pp. 1041-1051, August 2001.



정지애 (Ji-ae Jeong)_정회원

2016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상담학 석사)

2017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상담학 박사 과정)

2017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취업상담, 청소년상담, 상담기법, 프로그램개발